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해바라기방과후 아이들 모습(상주 등살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35
비수도권 열린 강좌 후기/38
조합원 교육 후기/40

날적이 톺아보기/42
편집후기/43

2012.9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삶 속의 ‘평범한 악’을 경계하며

김재성(해바라기 김동현 아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미국잡지 ‘뉴욕커’의 의뢰를 받고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별법정에서 열린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취재합니다.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실무 책임자로 전쟁 후 아르헨티나로 도망했다가 1960년 체포된 사람이죠. 아렌트가 본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체격도 별로 크지 않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너무도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를 지극히 ‘정상’이라고 판정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에 관여한 이유에 대해 “단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아렌트는 이에 대해 “그는 아주 부지런히 일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지런함을 탓할 수 없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렌트는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악의 평범성’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

면, 악마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주어진 일을 기계처럼 수행한 것이죠.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해 가을 딸아이와 함께 읽은 책 ‘생각한다는 것’ 중 일부 내용인데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인상 깊게 남아 지금까지도 되뇌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도, 아이와 함께 하는 삶에도 많은 지시와 명령, 통념, 편견, 사회구조가 개입되어 있는데 내게 맡겨진 일을 ‘생각 없이’ ‘성실히’ 따라가다 보면 나도 평범한 악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과 함께요.

저는 직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 절차와 지시, 명령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 중에는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물리적 강제도 포함되어 있죠. 매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늘 고민하지 않으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직장 생활 십구년을 지나온 요즘 승진 등 가시적 성취라는 마음의 부담

을 한꺼풀 벗겨내면서 다시 내가 하는 일과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두려운 이유도 그것이지요.

아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저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 놀고, 필요에 따라 의논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강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겨야 내가 사는’ 치열한 경쟁체제가 아이들의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에 ‘누구는 뭘 하더라, 지금은 뭘 할 때다’라는 옆집 통신이 불러일으키는 불안함, 거기에 아이의 장래에 대한 내 안의 또다른 욕망과 불안까지 더해지면 남들 하는대로 그냥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고개를 듭니다.

(틈만 나면 기타를 들고 음악활동에 매진(?)하지만 현재까지는 나름 학교 성적이 좀 나오는 단아를 보면서 수학과 영어학원에 보내면 성적이 더 나아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징검다리 시험에서 10점을 받고 방학숙제를 하나도 안하고도 즐거운 동현이를 보면서 저도 마냥 즐거워지는 한편에 지

금 잡아주지 않으면 학습부진으로 인생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확실치도 않은 미래에 현재의 삶을 내주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내 아이가 한 교실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연대의 대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제 나이에 누려야 할 모험과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때가 되면 부모 곁을 씩씩하게 떠나가는 독립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희망에 기대어 불안을 한 고개 한 고개 힘겹지만 즐겁게 넘어가고 있죠.

지금 저의 삶이 이렇듯 힘겹지만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다른 생각을 들려주고 가르침을 주는 가족과 조합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앞으로의 제 삶이 또 다른 생각과 모험에 마주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

씩씩한 어린이집 8월 및 상반기 교육평가 9월 교육계획

정현주, 노승복, 박정애, 조윤정, 황태순, 김지영
(아침, 나비, 햇살, 체리, 벚꽃, 피터팬)

9월 교육계획

- 이 달의 주제 : 가을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처서, 백로, 추석
- 이 달의 노래 : 절기 노래

절기 노래(4절)

더위가고 가을 시작 입~추
더위쳐치 해버리자 처~서
이슬내려 가을 왔네 백~로
가을 한가운데 나눠 추~분

추석

어린이 시, 백창우 개사. 곡
팔월이라 추석 날은 즐거운 명절
밤먹고 대추먹고 송편도 먹고~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높푸른 하늘
빛나는 햇살~ 밤이 익어요
 감이 익어요
 벼가 익어요
 단풍 들어요

잠자리 뽀뽀

잠자리 뽀뽀 꿈자리 뽀뽀
이리와라 뽀뽀 저리가라 뽀뽀
잠자리 뽀뽀 꿈자리 뽀뽀
이리오면 살고 저리가면 죽는다.

■ 교사회 일정

출근 시간

07:30 아침
08:30 벚꽃
08:40 나비
09:30 햇살
10:00 피터팬,체리

교육 및 회의

4(화) 교육실제과정
12(수) 어린이집 원장 대상 보육 통합 시스템 교육/체리
 어린이 회관 피꼬리 극장
14~15(금~토) 지역 대표자 모임
 공공교 사무국 / 아침
15(토) 교육실제과정 /아침, 체리
21(금) 대구지역 전체 교사모임
 솔방울 어린이집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28(금) 교사 긴 회의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휴가

11(화) - 체리 보건휴가

통에 넣어 두었습니다. 사용 후에도 제자리에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합 행사

8~9(토~일) 조합 들살이/17주년 개원잔치

* 하원 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실내외 놀이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아마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달사항

* 아이들이 색연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하원 시 아마들께 색연필을 깎아 주시길 요청 합니다. 칼은 교사실 창턱에 청색 천 필

* 등원할 때처럼 하원 할 때도 즐겁게 인사 나누고, 마실을 갈 때나 아마 외에 다른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오실 때는 교사회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일정

	월	화	수	목	금
1주	3 차모듬 산딸기 언덕	4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5 전체모듬 헬스산~계단길	6 연령별 모임 선화통합활동	7 안전교육 태권도 달기모듬 백로
2주	10 차모듬 연못가	11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12 전체모듬 긴 계단~연못가	13 연령별 모임	14 먹거리교육 태권도 달기모듬
3주	17 차모듬 도토리길	18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19 전체모듬 정자길~등산길	20 연령별 모임 선화통합활동	21 기본생활교육 태권도 달기모듬 추분(22) 박주하생일(23)
4주	24 차모듬 기차산	25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26 전체모듬 기차산~정상~꽃 통영길	27 연령별 모임	28 소방교육 요리활동 태권도 달기모듬 추석(22)
메 모					

8월 돌아보기

전체 교육

※ 안전교육 - 식중독을 예방하자!

여름이 되면 음식이 쉽게 상하고 그로인해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장염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어른보다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손을 비누로 씻어” “먹기 전에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해”와 같이 기본생활교육을 할 때 익히 들었던 손 씻기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손은 깨끗이 자주 씻기, 물은 반드시 끓여먹기, 차가운 음식 많이 먹지 않기(배탈이 날 수 있다), 음식은 냉장고 보관하기 등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 먹거리 교육 - Fast food의 진실!

피자,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등 아이들은 fast food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가정에서 제한을 하고 직접 만들어 주시거나, 아직까지 fast food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커 가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그 위험성을 잘 모르기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외국 기사에서 fast food점 햄버거와 수제 햄버거를 상온에 두고 관찰한 결과 fast food점 햄버거는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변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였다. 그만큼 광대한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든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과 제철 야채를 많이 먹으며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을 많이 먹자고 했다.

※ 기본생활교육 - 바른 자세로 모둠에 참여하기!

아침 열기 모듬할 때, 각 방에서 모듬할 때, 점심 먹을 때, 아이들은 무척 자유분방하고 편해 보인다. 터전에서든 그러한 분위기를 허용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편하게 모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몇몇 아이들을 보면 자리를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옆드리거나, 눕거나 모듬에 집중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옆 친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우리 모두 모듬을 할 때는 옆 친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약속을 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나들이

“입추가 지나니까 바람이 진짜 시원해” 나들이를 나서면서 규언이가 시원한 바람을 몸으로 느끼며 하는 말처럼 아이들은 절기와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것 같다. 나들이에서 먹구름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다시 햇님도 만나고 날씨변화가 많았던 한 달이기도 했다.

월요일 차 모듬 뒤에 가까운 곳으로(주로 연못가, 도토리길, 등산길 등) 나들이를 가볍게 다녀오는데 짧은 나들이 시간 안에서도 자연물을 가지고 즐기는 놀이를 주로 한다. 수요일은 긴 산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산행을 통해 숲길 전체를 걸으며 성취감도 느끼고 숲의 전체 모습도 보고 느끼며 변화되는 동물과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오감을 열어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다.

“산에 오면 모기도 많고 예잇~ 괜히 왔

다.” 등산길에 올라서 유난히 모기에 많이 물려서 하소연하듯 이야기하는 차람이의 이야기에 곁에 있던 성희가 “그러니까 나처럼 몸을 깨끗이 씻고 다녀야지 모기가 안 오지!” 한다. 조금 새침해진 차람이 “체리도 모기 많이 무는걸 보니까 깨끗이 씻어야겠다.”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신다. 차람이 뿐만 아니라 나들이에서 땀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해 모기에도 많이 노출되기도 해서 나들이를 다녀 손 와서 손 씻기, 세수하기를 포함 많이 더웠던 날에는 등목이나 간단한 몸 씻기를 자주 하였다.

날이 많이 더운 날에는 몸도 마음도 다운되어 산 나들이를 나서기 싫어하기도 하지만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나들이 다녀오니까 기분이 혹은 마음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나들이는 우리생활의 활력소이자 비타민임에 틀림없다. ^^

연령별 활동

※ 4세 - 도담방 9월 계획안

요일 주	화	목
1주	무궁화 그리기	다른 나라가 궁금해요
2주	요리활동(과일꼬치)	밤나무 꾸미기
3주	물에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 살펴보기	가을 과일/열매 알아보기
4주	내가 만든 태극기	한복입고 절하기

※ 5세- 보석방

5세 아이들은 초기보다 놀이가 확장됐다. 처음에는 혼자 놀이하는 아이, 놀이에 참여하다가 빠지는 아이,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흥미가 없는 아이, 반면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형님들이 하는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이를 만들어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리드하는 아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목소리도 커지며 의사 표현도 확실해졌다. 또래모임 하는 날이 되면 아이들은 우르르 가람방에 모여 기다리고 있다. 그 전에는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는데...자기들끼리 먼저 누구누구 안왔어, 나들이 어디갈꺼야? 어디 어디 가자!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에 점심시간만큼은 전쟁이다. 이 시간 또한 나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고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니 먹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바르게 앉아서 맛을 음미하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낮잠 시간은 눕자마자 잠드는 하선이부터 잠이 원래 없는 은준이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잠이 든다. 낮잠이 필요한 시기이고 다들 잘 자고 있어 다행이다.

오후엔 하선이와 승우 채취 수하는 모래놀이를 즐겨한다. 나머지 아이들은 실내에서 책을 읽어 달라하거나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굵적이기를 즐겨하지만 실외 놀이도 때마다 즐겨한다. 날씨나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실외와 실내로 나뉜다. 하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본다.

※ 6세- 상어방

8월9일- 이규언집 마실 초대

8월16일- 이마트 맞은편 바닥분수

8월23일- 이하람집 마실 초대

상어방이 모이는 날 분위기는 더 활기차고 더 자유로와 보인다. 상어방 모임을 아이들 모두 너무 좋아하고 기다리는 데에는 아이들이 긴 나들이에서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과 책임,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루 흐름이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놀이와 연결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말하고 조율하며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결과를 만들 때에는 의견이 잘 모아진다. 한 놀이가 깊이 있게 확장되는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놀이로 이어지고 이것에 아이들은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또한 아마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주 마실 초대해 해주신 영향도 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인원은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자아이가 한 두명 더 있다면 아이들의 관계와 놀이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7세 -태권 브이방

운동에 관심이 있는 찬종, 현민, 환주, 찬홍(그렇게 몰입하지는 않아 보임. 몸보다는 말로 경기)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부분 야구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올림픽의 영향인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지도를 보고 “이건 아시아지?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지?”하고 묻기도 하고 지도책에 그려진 배들을 보고 নিজ자고다 하며 우루루 몰려 “내 이거 짬!”하며 논다. 오빈이는 태권V를 그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하긴 곤충들을 세밀하게 그릴 때부터 그 떡잎?은 보였다. 본인도 그림에 너무나 만족해하며 동생들이 줄을 서서 오빈이의 그림을 받기를 고대한다.

시훈이는 야구에도 끼였다가 조용하게 책만 보기도 했다가 두루두루 잘 논다. 하지만 야구에서 팀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너무 서럽게 운다. 찬홍이가 “연습해서 잘하는 거거든!”하자 “그래도!!”하던 시훈이가 아이들이 야구하지 않을 때 조금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빈이도 함께..^^

주하는 그 작은 체구에서 어찌나 카랑카랑하고 높은 음색이 나오는지...벚꽃이 인정하는 시인-시적인 언어를 쓰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하며 나들이길 동생들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젠들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현동은 놀이에도 끼이지만 동생들과 뒷얘기를 자주했다.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인지 우짜든들 들어보려 애썼지만 행동도 재바른데다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번 달은 꼭 그 비밀을 알고 싶다. 밥먹을 때도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는다. “현동아~엉덩이”하면 그 때 땅에 댈다. 정신없게 하다가도 고도로 집중하는 참 극과 극을 잘 오고 가는 현동이다.

민소, 연수, 소정이는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코드가 아주 잘 맞는 듯하다. 사극과 환타지를 넘나들며 동생들도 그 속에 끌어들인다. 소정이는 친구들과 노는 모습에서 초반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연수는 같은 곡을 틀날 때마다 치며 절대음감을 익히는 중이다. 소정이는 그림을 여자동생들이 아주 만족하게 잘 그려준다. 민소는 여전히 감성이 풍부하고 가끔 “누구한테 뽀뽀해줄꼬?”하고 남자 아이들을 기겁하게 한다.

채원이는 남자 아이들과 터전에서는 자주 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집에서 야구를 안 봐. 일찍 자야 돼. 나 야구 몰라”하며 이야기 해준다. 그래서 나들이 갈 때는 그렇게 더 남자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구나. 아직은 혜승이랑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어땠어 하고 얘기하지만 처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있다. 혜승이가 노래를 하면 아이들이 함께 부른다거나 동생들이 모인다. 채원이와 함께 장구를 간간이 번갈아 쳐주고 있다.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하고 잘 풀어서 동생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 되새겨야 할 것들

● 관습화된 하루일과에 대한 반성적 질문

비슷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의 수많은 다른 언어와 이야기가 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도 눈여겨보자.

● 왜 하는가? 왜 꼭 이시간인가?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이유가 있다.

마음을 열어두는 느긋함이 필요하다. 느슨하다(시간, 공간)-일률적인 하루흐름에 사람이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아이들의 호흡에 맞춰 하루가 구성된다.

● 세시절기와 나들이 끌어들이기- 반복, 심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것이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절로 흥에 겨워 나오기도 한다. 매일 반복되어지고 묵혀져 나이트를 이룬다.

● 우리 안의 세시절기들을 잘 해석하고 조합과 어떤 공동체문화를 만들 것인가?

지역마다 또 터전마다 문화는 다르다. 나는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8월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의 여름을 터전에서 보내며 내가 해야 할 것은 왜 내가 이곳에 찾아왔으며 무엇에 거부감을 느꼈던가에 대한 중심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연령을 비롯한 터전의 모든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 초등학교라는 공교육의 문에 다가가고 있는 7세들과 조금의 시간들을 더 보내며 혹시나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해석으로

만 아이들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본다.

선화/씩씩한 통합이야기

8월 9일 썩썩한 물놀이장을 열었다. 깨끗한 물의 상태를 위해 아침부터 물을 받아 데워놓고-통이 조금만 더 컸어도 혼자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같다.- 미끄럼도 닦아놓고, 아빠들이 정성껏 만들어 주신 평상도 닦고 선화 손님맞이에 분주한 아침을 보냈다.

선화친구들을 기다리며 7세들에겐 물놀이 때 필요한 물총을 갖고 와도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 함께 쓰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노란차가 보인다.

그 곳 선생님들이 연수 가신 관계로 몇분의 선생님과 다른 분들이(부모?,학생들)오셨고 벽화 앞에 모여 인사를 한 후 목돌리기, 팔다리 흔들기 등 준비 운동을 함께 하였다. 어제도 선화친구들은 옥상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날이 계속 더우니 특히나 물을 찾는다고...19명이 한꺼번에 두개의 고무통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지라 미끄럼틀도 함께 탈 수 있도록 권유했다. 좁으니 다닥다닥 붙어서 마음껏 헤엄치거나 물장구를 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물총을 쏘면 여러 명이 그 물을 맞으니 혼자가 아닌 물총세례가 싫어도 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짹 짹 거리며 온 동네 떠날 듯 소리 질러도 상원이랑 태훈이는 물속에 자리를 잡고 꿈쩍도 않고 앉아 시원함에 흐뭇해하고 아이들이 방방 뛰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채원아와 찬종, 현민의 물총공격에 나도 웃을 흠뻑 적시고 말았다. 그렇게 물놀이를 실컷하고 - 태훈아와 상원아는 나오기 싫어서 울고- 따뜻한 매실차를 함께 마시고 헤어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 짧아 아쉽다.



8월 23일, 우리가 선화어린이집에 가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지만 계속되는 장마로 계획이 변경. 함께 할 장소를 고민하던 중 콩콩랜드로 정하게 되었다. 거칠게 내리는 비에 아이들은 “비가 옆으로 들어와서 못 탈거야.”하면서도 “선화 언제와?”하며 계속 시계를 쳐다본다. 역시 비 때문에 10분 더 지나 친구들이 왔다. 콩콩랜드에 들어서자마자 흥분하며 달려드는 7세들을 진정시키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은 후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다. 넓은 공간을 우리들만 쓰다 보니 자유롭게 왔다갔다하고 선화친구들도 땀을 흠뻑 흘리며 뛰었다. 함께 편을 나누어 공놀이를 했다. 공을 잡으면 상대팀을 맞추기 위해 던져야 하는데 안 던지고 가만히 있자 “던지라고!!”하며 흥분하며 소리지르고 그래도 계속 들고 있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벚꽃이 술래를 하고 선화 친구들이 공을 맞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를 하였다. 승원을 막느라고 시훈이는 승원이 옷까지 잡아끌고 현민, 환주, 찬중은 그 주위를 감싸며 나를 약을 올린다.“맞춰보시지~~”하면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궁금해졌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요리활동과 식단

요리활동1-(8월31일)

과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더위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막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잼과, 과일, 꿀 등을 넣어 먹던 떠먹는 요구르트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했다. 아이스크림속의 아삭거리는 과일은 복숭아를 선택하고 무맛의 떠먹는 요구르트는 딸기잼, 감귤 잼을 가미하여 단맛을 냈다. 아이스크림 속 복숭아는 조금만 필요해서 남은 복숭아를 자유롭게 먹도록 넉넉하게 준비해서 더 즐거운 활동이 되었다. 활동 후 냉동실에 두고 얼기를 기다렸다. 바로 먹지 못해 아쉬운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 전에 미리 작은 얼음 틀에 얼려 두었다. 나들이 출발 전에 하나씩 입에 물고는 아이들이 좋아라 했고, 막대아이스크림은 다음 주 햇볕 쨍쨍한 날 먹을 계획인데 아이들이 기꺼이 기다렸다 먹겠다고 한다.

오전새참

찌는 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어서 더위에 입맛을 잃지 않게 준비하고자 했지만 준비된 간식에 식욕이 당기지 않은 모습을 볼 때면 아이들이 안쓰럽고 조금이라도 먹어야 나들이 때 더위에 이길 수 있을 텐데 싶

어서 걱정스럽다. 요즘 단호박이 많이 나오는 철이라 미니 단호박찜을 준비했다. 나비랑 샘은 고구마처럼 달고 맛나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호박 자체에 거부감이 있나보다ㅠ

많이 남은 단호박으로 다음날 스프를 준비해주었다. 색깔이 예쁜 노란 스프!! 그릇 굵은 소리 주방까지 들렸다. 맛있는 소리다.^.^ 방학이라 간식인원이 들쭉날쭉했지만 어느 정도는 인원을 맞추어 준비해서 별차질 없이 준비되었다. 조금씩 남은 경우 아침을 먹고 온 아이들에게 조금씩 권하면 맛나게 먹고 좋아했다. 그래서 다음날에는 간식을 먹으려고 일찍 등원 하는 경우도 있다.

점심

후덥지근한 날씨 탓으로 밥을 먹는 양도 줄어들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애처로웠다. 찬 것을 원하지만 찬 것을 먹어서 탈 난 아이도 있고 건강을 생각해서 찬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다. 지리멸치볶음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달콤 짭조름하게 만들었을 때는 맛있게 먹고 또 먹었지만 고춧가루도 먹을 줄 알아야지 하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더니 매워하고 잘 먹지 않았다. 입맛한번 귀신같다.

양배추 복숭아 샐러드 준비를 할 때 잘게 썬 복숭아만 골라서 먹는 아이들이 있어 함께 먹으라고 권유해 주었다.

일품요리 볶음밥 -아주 좋아하는 식단인데 이날따라 유난히 더 더워서 얼굴도 밝지 않고 많이 먹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다.

전날 더워서 밥 먹고 힘들어 했던 일일 생각나서 민소 생일때는 민소에게 여러 종류의 미역국을 얘기하며 뭘 해줄까 물었더니 쇠고기 미역국을 먹고 싶어 했다. 쇠고기 미역국, 닭가슴살 샐러드, 김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메뉴다.

오랜만에 상에 앉아서 콧노래를 불러가며

밥 먹는 모습에 흐뭇했다.

약간 심심하게 준비된 닭계장은 야채가 넉넉했지만 국물과 더불어 잘 먹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불고기 덮밥은 맛이 부족해서인지 먹기 힘들어 하고 오랜간만에 미역오이냉국을 준비했는데 따뜻한 미역국과는 달리 미역오이 냉국은 먹기 힘들어했다.

순두부를 듬뿍 준비서 주었더니 순두부만 남겨서 속상했고, 햄야채 볶음엔 햄만 골라서 먹다가 잔소리(??)듣고는 야채와 함께 먹었다. 풀로 가득한 텃밭에서 가지를 수확해 가지전을 준비해주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나비에게 옆에 와서 가지전 맛있어!! 하고 이야기해준다.^_^


오후새참

복숭아, 수박, 포도, 옥수수, 누룽지튀김 등 대부분 아이들이 먹기 원활한 식단으로 준비했다.

과일 요플레를 준비 할 때 사용하지 않은 멜론이 있어 조각내서 냉동실에 얼려 복숭아, 토마토 등과 함께 과일을 듬뿍 주었더니 아이스멜론이 맛이 그 맛이 아니라한다 얼은 멜론을 먹기힘들어했다.ㅠㅠㅎㅎ

떡김말이는 떡을 아이들이 직접 말아서 먹는 재미와 놀이가 동시에 일어나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 9월 식단에는 텃밭 호박잎, 토란 및 신김치를 이용하고 다양한 식단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합니다.

* 이번 달에는 복숭아, 수박, 포도, 초콜릿, 커피와 함께 여러 가구에서 매실효소를 부조 받았습시다. 감사히 잘 먹고 이용하겠습니다. ^.^ 

상반기 평가

※ 2012년 씩씩한 어린이집 상반기 전체 교육평가

활동	평 가
요리활동	<p>월 2, 3회 하던 요리활동이 긴 나들이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월 1회로 조정되어 아이들이 나들이 못지 않게 좋아하는 활동이라 아쉬움이 컸었다.</p> <p>요리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나 음식재료의 다양한 탐색과, 상상력과 표현력을 증진시켜 주며, 위생관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p> <p>썰기, 자르기, 오리기, 등 과정을 통해 다양한 근육의 조절력을 기르고, 함께 요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의 사회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편식이 심한 아이들에게 여러 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요리활동은 매월 1회 진행하더라도 각 방에서 월 1회 정도 요리하는 시간을 준비하여 적은 인원이 오붓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 할 수 있는 요리활동을 준비 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메뉴 정할 때에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했으면 한다.</p>
안전교육	<p>시청각교육과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상적인 이야기 나눔 형태로 아이들과 나누고 있다.</p>
먹거리교육	<p>생협에서 주최하는 먹거리 교육과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고민되는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과 나누었다. 터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먹거리 교육(식품안전 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모임에서도 지속적인 공유 과정이 필요하겠다. 아마-아이- 교사 모두가 교육을 통해 경험하고 일깨운 부분들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겠다.</p>
기본생활 교육	<p>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본생활교육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서로 생각을 나누었다.</p> <p>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p>
소방교육	<p>학기 초에 대피훈련 할 때보다 지금은 입과 코를 막고 허리를 숙여 재빨리 대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p> <p>탈출할 때 자신이 2층 미끄럼틀로 대피할지, 1층 계단으로 대피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경험으로 체득한다는 것을 느낀다. 아이들이 소방 교육 후 평상 위에서 방 아이들을 찾으며 인원을 점검하고 서로를 챙기</p>

	<p>는 것과 비상 미끄럼을 타는 것 또한 쏠쏠한 재미다.</p> <p>소방 교육 일지를 준비하고 시간을 제시하는 만큼 소방 교육은 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후로도 매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겠다.</p> <p>모든 교육을 진행 할 때는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나누기 이전에 교사회에서 미리 함께 나누는 여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p>
차모듬	<p>주말 지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차모듬 시간은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교사들에게는 주말동안 지낸 이야기를 차모듬을 통해 나눔으로서 가정에서 아이들의 생활과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p> <p>평소에 부조로 들어온 과자나 제주 초콜릿 등은 차모듬 때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다. 때로 방에서 다과 거리를 준비할 때면 아이들은 당연한 듯 터전 식구들 모두가 나눠 먹자고 말하는 넉넉함과 훈훈함을 보인다.</p> <p>초반에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나누기를 조금 꺼려하는 아이들도 점차 편안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에 따라 주말 지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나누니 그림도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p> <p>하반기에는 작년에 담은 매실과 오미자 효소를 다 먹어서 수세미 효소를 주로 마시니 오미자나 매실은 없느냐고 묻기도 하고 맛있는 차를 마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p> <p>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차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겠고, 효소는 오랜 시간을 묵혀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올 가을에는 오미자를 작년보다 여유있게 담궈서 넉넉한 내년을 준비해야 겠다.</p>
대동놀이	<p>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전하고 싶은 것이 교사회의 마음이지만, 공공 교에서 주관하는 대동놀이 교육도 수강 조건이 3년차 이상의 교사로 연차의 제한이 있다. 지금 교사들이 알고 있는 10여 가지의 대동놀이를 아이들과 즐겁게 풀어내도록 하고, 놀이와 노래를 즐겨 부르면 좋을 것 같다.</p> <p>대동놀이를 매주 목요일 낮잠 후에 진행을 하니 잠에서 덜 깬 상태여서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의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동놀이를 다 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고민을 했고 9월부터 화요일 오전에 대동 놀이를 하려고 한다.</p> <p>좋은 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 주를 두고 보았을 때, 아이들이 매일 바쁘게 빠듯한 일정에 맞춰져 가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 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이다.</p>
생일	<p>매년 한 번씩은 교사회도 아마들도 생일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가 이루어</p>

	<p>졌던 것 같다.</p> <p>교사나 아마들의 입장에서는 매번 생일의 방식이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일 년에 한 번 뿐인 자신의 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p> <p>한주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생일인 경우에는, 한 주의 흐름이 생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생일카드 만드는 시간확보를 위해 나들이가 제한되거나 다른 활동을 이어가는데 어려운 감이 있었다. 또 생일이 집중되는 달에는 매번 생일카드만 만들고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p> <p>그래서 생일 카드 만들기를 미술활동과 나들이를 연계하여 나들이에서 가져온 자연물로 꾸미거나 자투리 천을 이용 하여 꾸미기도 했다. 한 장씩 개별적으로 준비하던 생일카드를 지금은 방에서 공동으로 작업해 대형 카드를 만드는 등 카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p> <p>생일 턱은 떡과 제철 과일로 준비하고, 개별 가구가 생일 턱을 내니 아이들에게 생일 턱은 여럿이 나눠 먹는 다는 의미도 경험 할 수 있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생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반기를 지내고 생일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봐도 좋을 것 같다.</p>
<p>장애통합 교육</p>	<p>씩씩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장애유아통합교육을 올해 담당하고 상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도 기질이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선화의 친구들도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음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도 차이가 있어 보였기에 아이들 못지않게 나또한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지금하고 있는 행동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의사소통 대신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이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점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까?’ 등 의문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기에 한 달에 두 번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간들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잊히기 쉬웠고, 궁금함에 대한 공부나 어떤 해소 없이 그렇게 또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놀고 있었다. 다른 것보다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했던 초반의 의도는 지금 씩씩한과 선화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지…….</p> <p>“유아기의 놀이는 아동의 인지, 사회성, 언어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놀이를 통해 아동은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기의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아동은 마찬가지로 또래 아동과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발달을 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유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자발적으로 하려는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p> <p>다른 모든 것보다 이러한 발달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긍정적인 바람으로 남은 하반기를 더욱 고민하며 보</p>

	낼 것 같다.
연령별활동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연령별 모임의 날을 즐겨하고 놀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반기에는 볼 수 있었다. 문화 나들이의 내용과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횡수를 늘여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2012년 상반기 하루흐름에 대한 평가

생활리듬	시간	실행 및 평가		누리과정 영역	
등원 및 자유놀이	7:30 -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적이와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놀기 ● 손씻고 간식 먹을 준비하기 ● 놀잇감을 제 자리에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원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 아이들의 기분과 건강상태 확인하기 ● 아침식사 지도하기 ● 통합보육 및 자유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등원 시 하루의 첫 호흡은 어린이, 부모, 교사의 하루의 생활양상이 결정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 아이가 즐겁게 터전에 올 수 있도록 반갑게 맞아 주고, 아마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 설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미리와 있는 아이들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배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친구들과 교사가 등원하면 함께 맞이하면 좋겠다. 아마와 헤어 질 때 불안이나 아쉬움을 느끼고 우는 아이들은 감정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감 해 주고 스스로 감정을 정리 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 해 줄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해결하기보다 아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일찍 오는 아이들이 대체로 정해진 편이고 부모와 일찍 헤어져 등원을 하는 아이들이 하원 또한 늦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 잠이 막 깨서 온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휴식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유지 되도록 해야겠다. 	신체운동 · 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오전 간식	9:20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시간임을 알리고 모둠방에서 함께 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 등원하는 아이들이 도시락이나 식사 대체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간식메뉴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는 아이들도 조금씩이라도 먹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들이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아침을 먹지 않은 아이가 간식을 거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 모둠시간 전에는 간식 먹기와 정리정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30분부터는 주방에서 간식 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신체운동 · 건강 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간식 시간을 8:30~9:00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한다. 	
아침 모듬	10:00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아침 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카세트 준비하기 ● 아침체조 함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열기는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상호간의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중요한 시간이다. 아이들에게는 하루 일과의 계획을 시작 전에 인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시에 예측 가능한 가운데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며 교사에게는 아이들 개개인과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펴서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하되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하루 일상을 잘 지내기 위해서 아침 열기 이전에 응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침 열기 이전에 응원 할 수 있도록 아마다들께서 협력 해 주시기 바란다. 부득이 늦거나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일 전체 열기 모듬이 있으므로 아이들과 교사들도 안정되게 모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9시 50분 이전에 연락을 바라며, 가끔 아이 혼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당부가 필요하다. ● 함께 모여 노래 부르거나 다리세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이완 될 수 있도록 이달의 노래와 더불어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벽면에 게시하고 나들이 전에 소근육들을 이완하기 위한 체조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9월부터는 아침 모듬 시간에 체조를 함께 하도록 한다.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예술경험 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듬] - 노래 : - 아침 인사 나누기 - 손동작, 전래놀이: - 소방, 안전, 먹거리,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모여 노래 부르면서 기꺼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모여 노래 부르거나 다리세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이완 될 수 있도록 이달의 노래와 더불어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벽면에 게시하고 나들이 전에 소근육들을 이완하기 위한 체조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9월부터는 아침 모듬 시간에 체조를 함께 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듬] - 오늘 생활리듬 확인하기 - 교사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생각 이야기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하루의 생활리듬 안내하기(월요일에는 주간 생활리듬 안내하기) ● 나들이 장소 정하기 의사 결정과정 진행 ● 모듬주제 제안:새 친구와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모듬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모듬(주말 보낸 이야기) 한 주 보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 하는 시간이라 월요일에 한주의 이야기나 공유할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면 한다. 한 주를 아이들과 계획하고 싶으나 다음 일정(태권도)이 있다 보니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마음이 조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태권도를 요일을 변경하거나 오후놀이로 하면 어떨까? 왜 조금하게 여겨지는지, 왜 아이들과의 이야기도 정리가 안되는지의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말하는 방법 ,태도 ,성향이 개인차가 있어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기에 더욱 시간이 많이 	

			기	<p>부족함을 느낀다.</p> <p>해서 주말지낸 이야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태권도를 금요일 전체교육 후에 하고 근거리 나들이를 가기로 한다.</p>	
나들이	10:3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이 규칙 지키기 ● 나들이 작성하기 ● 자연의 변화 및 지역사회의 변화 탐색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나들이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이동하면서 함께 자연의 변화 및 지역사회의 변화 탐색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 장소에 적합한 놀이 생각해두기(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아이들과의 마주 이야기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보다 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아이들도 가는 길을 그냥 지나쳐가거나 서둘러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목적지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방식의 의무적으로 가는 나들이가 아니라 자연과 더욱 친해지고 편안하게 즐기는 나들이가 되었으면 한다. 긴 나들이를 갈 때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여 나들이 길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아말들은 등원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 나들이는 자연 자체에서의 오감 활동, 수집한 자연물로 표현활동,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활동 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쉽게 답을 주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고, 자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 놀이의 확장을 위한 교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 전체 나들이는 모두가 함께 하는 나들이므로 이동 과정에서는 큰 아이들이 동생들과 속도를 맞추는 배려가 필요하다. ● 나들이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결정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놀이가 활성화 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도 과정에서 인정하고 조율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만족도가 높아 놀이가 활성화 되고 협력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인다. 	<p>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p>
점심 손 씻기 이닦기	12:00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를 지켜 밥과 반찬을 먹을 만큼 덜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 스스로 먹기, ● 스스로 양치하기 ● 음식의 맛과 냄새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우미 역할을 주어 함께 점심 준비하기 ● 차례를 지켜 밥과 반찬을 먹을 만큼 덜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도록 지원하기 ● 골고루 먹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겁게 밥 먹는 분위기와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해 방에서 끊임 없이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 뿐 식사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 ●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먹을 만큼 적당히 덜어 먹으면 스스로의 양 조절이 가능하고 밥을 먹는 분위기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숟가락에 밥을 뜨는 것과 마무리하는 부분을 도와주어 스스로 먹게 하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고 뒷정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p>신체운동 · 건강 사회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놀이 	수 있도록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심 상 준비는 큰 아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것이 좋겠다. 밥을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먹는 분위기를 만들고 개별차를 인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하여 잘 씹지 못하거나 편식이 심한 경우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손 씻기와 이 닦기는 점차 생활화되어 가고 있고 기본 생활 습관인 만큼 지속적인 전체와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자유 놀이 또는 간단한 활동	1:00 -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속된 공간에서 놀기 (상황에 따른 사전 약속) 마당 놀이를 할 때는 교사와 함께 나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놀이 지원, 실내놀이 지원, 청소 등 역할분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교사들은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고 아이들의 자유놀이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식사 후 바로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으니 실내에서만 놀고 있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날씨가 시원할 때는 평상에서 식사하고 바깥놀이도 시도해보기로 한다. 아이들이 자기 옷과 바구니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아마들도 매일 바구니를 확인하고 젖은 옷은 바로 챙겨 가시길 당부하고 각 방에서는 금요일에 아이들과 바구니 정리의 시간을 가진다. 놀이감을 함께 정리하는 습관과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교사, 아마, 아이들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겠다. 하원 시, 방모임 등 아이들의 놀이 후 아마들도 아이가 놀이를 마무리하고 정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낮잠 준비 및 낮잠	1:30 -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다녀오기/ 물마시기 이야기책 정하기 이야기 들으며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잡자리 마련하기 이야기 들려주기 및 책 읽어주기 자고 일어나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이불을 함께 정리하기 날적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 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한권씩 읽고 싶은 것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어주고 이야기 들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 한해서 한정을 했다. 대답을 하다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위급한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 같이 이야기를 고민해 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를 한다. 	신체건강 · 안전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유 놀이 또는 간단한 활동	3:30 -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속된 공간에서 놀기 (상황에 따른 사전 약속) 대동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불을 함께 정리하기 날적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잘 자는 편이지만 여전히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조용히 몸 쉬기를 유도하여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하기	<p>낮잠 분위기는 안정적이다.</p> <p>3시까지 몸 쉬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방에서 조용한 활동을 한다.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깨지만 늦게 잠들거나 잠에 취해 못 깨는 아이들은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하되 간식 전까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옷 입기는 스스로 잘 하고 있으나 단추가 유난히 많은 옷이나 혼자 입기 힘든 옷은 가급적 지양해주셨으면 한다.</p>	
오후 간식	4:10 - 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고 제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 후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간식을 먹으니, 점심과는 달리 먹는 속도의 차이도 크지 않고 별 다른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신체운동 · 건강 사회관계
오후 활동	4:40 -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된 공간에서 놀기 (상황에 따른 사전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질감의 종이와 크레파스, 파스텔, 사인펜 준비해주기 ● 아이들의 활동 특성 관찰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간식을 먹고 나면 아이들은 앞 다투어 바깥놀이를 하려고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꼭 안에서 실내놀이만을 고집하는 아이도 있다. 오후 활동은 자유선택놀이여서 개별성향에 맞추어지지만 실내에서만 있기를 원하는 아이도 바깥놀이에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 ● 교사들의 순환은 시간을 정해놓으니 효율적인 것 같다. ● 만다라를 아이들이 다시 찾아 색연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원 시 아마들께 색연필 깎아 주시길 부탁하면 좋겠다. ● 만다라는 명상을 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정적인 활동이므로 단순한 색칠 공부라 되지 않도록 각 방에서 활동 후 느낌 나누고 제목과 아이들의 이야기 내용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챙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 	자연탐구 예술경험
자유 놀이 및 귀가	5:00 -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놀이 ● 부모님이 오시면 놀던 놀잇감 정리하고 귀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보육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귀가하기 ● 부모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귀가 인사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때는 아이들이 놀던 자리의 실내외 놀이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아마들도 도와주셨으면 한다. ● 등원할 때처럼 하원 할 때도 즐겁게 인사하고 헤어졌으면 하고, 마실을 갈 때나 다른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올 때는 꼭 교사회에 전달하기 바란다.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아라방 평가

생활	평 가
<p>등원 및 자유 놀이</p>	<p>서영, 찬종, 현동, 하선은 꾸준히 일찍 등원하였다. 친구들이 오면 함께 놀이를 하거나(찬종, 현동),도시락을 먹거나(서영, 하선)하며 오전을 보내왔다. 특히 서영, 승주는 올해 첫 등원이어서 초반에는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터전생활이 많이 편안해진 듯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잠이 막 깨서 일찍 온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 필요-휴식공간, 종이, 책 등 2. 일찍 오는 아이들이 대체로 정해진 편-부모와 일찍 헤어져 등원을 하는 아이들이 하원하는 경우 또한 늦은 경우가 많다.-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은 조용한 시간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컨디션은 어떤지 ,가지고 온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기 등)
<p>오전 간식</p>	<p>밥을 먹고 오더라도 간식을 먹는 친구들이 있다. 먹기 싫을 경우 밥을 먹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이 될 경우 먹기 싫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그날 그날 나오는 메뉴를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게 한다.</p>
<p>아침 모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함께 모여 노래 부르거나 다리세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2층에 친구를 데려오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먼저 언제까지 내려오라고 예령을 하였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2. 아이들이 많이 빠진 경우 아이들이 누가 빠졌는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왔나요? 땡동or땡 놀이) 3. 함께 모여 오늘의 날씨나 자연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주변에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p>주말 보낸 이야기 - 차모듬</p> <p>한 주 보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 하는 시간. 월요일에 한주의 이야기나 공유할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주말에 뭘했는지 모르겠어(주로 5세들)와 낙서로 표현을 했지만 점차 이야기도 길어지고 내용도 구체적,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어떻게 보냈는지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할 얘기도 많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진 것 같다. - 토, 일요일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며 주말 보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단색으로 된 그림이지만 정성을 들임, 게임을 만들기도 함.</p>
<p>나들이</p>	<p>방별 나들이를 갈 때 최대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해서 가도록 했고 그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만족한 결정대로 따르려고 했다. 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정해져있는 편이었는데 그렇더라도 이유를 들어보고 다른 의견을</p>

	<p>내었던 친구들도 그 이야기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면서 그들이 장소가 정해졌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었지만 대체로 먼거리를 가더라도 만족했고 나 스스로도 아이들의 결정을 따르고 진행하면서 훨씬 편안해진 것 같다.</p> <p>5세 여자아이들은 3명이 주로 어울리며 논다(서영이는 한번씩 놀이에 빠지기도 한다. 승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나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 하선이가 5세 남자 한 명이라 아라방 나들이에서는 혼자 잘 놀지만 심심해하기도 한다. 전체 나들이나 터전에서는 승우와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를 챙기는 애뜻함이 있다.</p> <p>문경이는 형들과 잘 놀고 형들도 많이 챙기고 함께 놀려고 한다. 초반에 노는 방법을 잘 몰라 주눅주눅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은 없다.</p> <p>지호는 상반기 터전을 나오지 못할 때, 그리고 갓 등원할 때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다. 거기다 혀 짧은 소리도 많이 낸다. 나들이를 가는 것이 터전에 있는 것보다 덜 재미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나서면 앞장서고 체력도 뒤지지 않는다.</p> <p>작년에 비해 현동이가 곤충을 찾고 몰입하는 빈도가 훨씬 작아졌다. 여전히 나무막대는 집착을 하는 편이지만...오히려 터전에서 만다라를 할 때나 주말 보낸 이야기를 할 때 ,카드 만들 때의 정성이나 세심함이 시간만큼 비례하는 것 같다.</p>
<p>점심 손씻기 이닦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들이 스스로 도우미가 되어 해 볼 수 있도록 함-자신이 먹을 만큼 적당히 덜어 먹기(스스로의 양 조절 가능하고 밥을 먹는 분위기가 더 좋아짐) 2. 마무리 하는 부분은 도와주지만-깨끗하게 그릇을 비우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아직 식사 습관 이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영,하선-멍하니 앉아있거나 발가락을 만지고 꼬지락 거리는 것, 입 안에 음식을 문 채 씹지 않고 있는 것 등, 현동, 환주, 찬종, 채원 -7세들의 먹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으나 손놀이나 젓가락으로 자신도 모르게 장난을 치는 부분 등) 3. 밥을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먹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개별차를 인정(잘 씹지 못하거나 편식이 심한 경우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p>자유 놀이 또는 간단한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사 후 바로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바깥놀이에 갈 시간이 없다. 대신 실내라는 약속된 공간에서 놀기를 하였다. 2. 자기 옷이나 바구니를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초반에 배웠던 옷을 비롯한 바구니를 정리하는 부분이 다시 소홀해졌다.
<p>낮잠 준비 및 낮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옛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한권씩 읽고 싶은 것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어주기를 하였다. 2. 이야기 들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 한해서 한정을 했다. 대답을 하다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위급한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 같이 이야기를 고민

	<p>해 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를 한다. 한두명 늦게 잠드는 친구들을(환주, 문경, 현동) 제외하고는 대체로 잠드는 시간이 빠른 편이다.</p>
<p>자유 놀이 또는 간단한 활동</p>	<p>잠자고 여유롭게 일어나는 시간 1층은 2층과 떨어져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폭 잘 수 있고 일어나는 시간도 여유로운 것 같다. 먼저 음악을 틀어 환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시계보다 정확한 찬종이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눈을 뜨고 뒹굴 거리면 근처에 자던 아이들이 깨기 시작한다.2층에서도 옷을 갈아입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책을 본다든지 만다라를 한다든지 하면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깨기도 한다. 일찍 잠드는 하선, 영윤이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 4세 지오가 영윤이 깨우기를 많이 담당^^했다.</p>

※ 마루방 평가

아이들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이들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이월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얼음을 지치며 추운 줄도 모르고 노는 찬흥이, 현민이, 규언이 모습에서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워서 물놀이를 많이 즐겨 건강하게 그을린 수하, 채희, 하람이를 보니 부쩍 많이 자라서 여물어진 모습이다. 식사시간에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아도 뿌듯함이 느껴진다. 차람이, 상화는 요즘 들어서 식사량도 눈에 띄게 늘고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밥을 잘 먹고 있다. 놀이와 일상에서 또래와 교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 윤서와 민소의 모습에서 점차 안정감이 느껴진다. 아이들마다 조금씩 개별적인 차이는 있으나 기본생활습관도 몸에 배여 절제와 자유를 적절히 조절해가고 있다.

마루방에서 수하에 대한 오빠들의 사랑은 각별하다. 그 중에서도 현민이는 수하가 울거나 보챌 때 달래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다감하여 가끔 오빠를 찾아오는 서영이가 토라져서 가버릴 때도 있었다. 작년 한 해 터전의 모든 오빠, 언니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차람이가 한 동안 우울했었던 이유도 우리끼리 흔한 말로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옮겨 다니는 거야’ 를 몸소 체험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ㅎㅎ 놀이와 정서가 맞

는 상화와 채희는 낮잠을 잘 때도 옆에 자기를 원하지만 이야기가 끊임없이 많아 낮잠에서 서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의 동의하에 낮잠 시간만 잠시 헤어지는 걸로~~~

매사 긍정적이고 친근한 규언이는 형들과 누나, 동생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주는데 가끔 그것이 자기의 의지라기보다 형들의 지나친 요구로 이루어질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새침한 차람이가 속상해있을 때도 규언이와 하람이가 곁에서 잘 달래주곤 한다.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아이라면 신규로 등원한 하람이와 윤서이다. 빠르게 터전의 나들이문화와 놀이에 적응하면서 확~ 풀어지는 하람이의 모습,,, 윤서 또한 또래를 포함한 터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평등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관계맺음을 해나가고 있어서 교사로서의 보람과 기쁨의 에너지를 함께 할 수 있었다. 7살 혜승, 민소, 찬흥, 현민이는 방에서도 또래끼리에서도 터전 전체 곳곳에서 적절히 안내자와 도우미의 역할을 잘 해 주고 있으며 또래들끼리도 놀이에서의 즐거움을 더해가고 있다.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함께 노는 방법을 더 잘 익혀서 동생들에게 놀이 모델링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교사들도 놀이 지원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 도담방 평가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무더웠던 날씨가 아직 낮기온이 높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텃밭의 많은 여름작물들과 잡초들을 보면서 이제는 땅을 활용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쉬움이 크다.

텃밭에 남아있는 작물들은 무더위와 가뭄으로 좋은 상태로 보이진 않았고 이제 여름의 모습보다는 어느덧 결실의 계절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2월 20일부로 첫 출근하여 어느덧 7개월째 접어들고 상반기 평가를 한다니 감회가 새롭다.

아이들과 첫 만남의 그 설레임과 아마들과의 방모임을 통해 정이 빠르게 들었고 그런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으니 흐뭇하다. 그동안 다치거나 많이 아픈 아이들 없이 잘 지낸 것이 동료 교사들과 아마들의 헌신의 결과라 여겨진다. 늘 나들이길에서 막둥이들이라고 손잡아 주고 애들 손길이 많이 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방청소도 해주셨던 교사들과 매번 방모임 때 맛있는 저녁식사를 해주시고 날적이를 통해 늘 격려해주셨던 지난 기억들이 생각난다.

유체는 몸이 약한지 자주 아파 결석했던 날이 많아 다시 적응하기를 반복해서 안쓰럽기도 했었다. 또한 서연이는 친언니가 터전에 같이 등원했음에도 적응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 더욱 유심히 보살폈다.

학기 초에는 밥만 많이 먹고 반찬은 나중에 조금 먹고는 안 먹겠다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시간이 흘러 국이 오면 조심해서 떠 먹을 줄 알고 자기 앞에 놓인 밥은 다 먹고 놀러갈 줄 알며 교사 수저까지도 챙겨주는 감동까지 받게 되었다. 질긴 나물이나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하면 미리 오전에 동화책을 읽어 야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후 점심을 먹으면 일주일간 잘 먹는 효과도 봤다. 밥 먹는 양은 조금씩 다르다.

지오는 자주 두 그릇씩 먹으려고 했고 소현이는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나중에 먹는 편이라 같이 먹기를 권하고 있으며 영현이는 골고루 잘 먹었으나 국을 자주 쏟았다. 유체는 밥 먹는 속도가 느리지만 골고루 잘 먹었고 서연이는 질긴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거부했지만 요즘은 친구들을 보면서 잘 먹는다

언니 오빠들이 놀고 싶어서 오후간식을 조금만 먹고 나갈 때 도담방은 워낙 잘 먹어 부족했던 간식을 더 먹을 수 있어 좋았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는지 평소와 다르게 밥 양도 줄여서 먹고 있다.

낮잠 자는 것은 초반에 모두가 잘 잠들었으나 6월부터 지오와 소현이가 낮잠을 안 자려고 했었다. 여러 차례 잠자리 위치를 바꿔본 결과 지오는 장난감이 없는 창문 쪽으로 누워 있으면 빨리 잠들고 소현이는 지오가 먼저 잠들면 심심해서 잠드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 외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던가 옛이야기를 읽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 20분 이내 잠들었다. 간혹 안 자려고 하는 아이들은 먼저 잠든 친구들을 확인하고 책방에서 책을 보던가 갖고 와서 내가 읽어줬고 방문 앞 소꿉놀이 주변에서 놀도록 하여 교사 시선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안자기를 원했던 아이들도 생겨 잠을 안자면 오후에 뛰어놀기 힘들고 간식도 맛있게 많이 못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옛이야기를 꾸며 자주 들려줬더니 잘 때는 간혹 “나 간식 많이 줘. 이제 잔다. 나 키 커지고 있어”라고 묻는다.

서연이와의 첫 만남은 양치질을 스스로 할 줄 알고 소변을 볼 때 앞으로 숙이며 휴지로 닦는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외모도 그렇지만 매사에 하는 행동들이 부드러워 참한 여자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집에서 친언니가 하는걸 보고 따라한다고 아가가 알려 주셔서 또 한번 매일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함을 느꼈다.

그 외 아이들은 양치질이 서툴러 먼저 스스로 한 후 내가 구석구석 세밀하게 한 번 더 해준다. 내가 치과에 자주 가는 편이라 어릴 때부터 이 관리를 잘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 꼼꼼하게 이를 닦고 있다.

손 씻는 습관은 많이 자리를 잡아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간다온 후 “손 씻었어”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보여준다. 놀고 난후 장난감 정리하는 모두가 같이 한다고 강조하고 잘 따라와 주더니 요즘은 소현이와 지오는 도망간다. 그러면 영현이가 끝까지 따라가서 하라고 얘기하던지 아님 교사에게 꼭 일러준다.

아이들 관계는 여아 대 남아 비율이 4:1이지만 지오가 남자 혼자로서 두루 친하고 잘 지낸다. 초창기에는 유채를 유별나게 보호하려고 아기 대하듯 하더니 유채가 결석을 많이 한 후는 찾지 않고 개월 수가 비슷한 소현이와 많이 친해져서 요즘은 둘만 놀려고 한다. 서연이와 영현이는 지오가 손잡아 주지 않아도 울지 않지만 소현이와 유채는 기분이 상한듯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다. 심지어 소현이는 지오가 손 안잡아주면 “앞으로 안 놀꺼야”한다. 그러면 지오는 씩 웃으며 손을 잡아주고 풀어준다.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혼자 놀거나 소외되는 아이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은 어려서 남녀간의 성에 대한 구분도 크지 않아 서로 어울려서 잘 놀았다.

상반기 활동은 풍물을 배워 방에서도 노래 부르며 난타연습 해보고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주1회 미술 만들기를 하며 자신이 만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벽에도 붙여 보고 낮잠 잘 때 볼 수 있게 형광등에 매달아 친숙하게 봄으로써 자신감과 안정감을 줬다. 놀이터보다 주로 산나들이를 즐겼고 그 결과 많이 탄 모습의 애들로 변해 있다. 지금껏 꾸준히 진행 중인 활동은 나들이, 미술만들기, 요가, 태권체조 따라

하고 구경하기 등이 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지내면서 놀아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애들과 놀려고 해본다. 어느 터전의 경험 많은 교사의 말처럼 공동육아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공동육아로 공동체로 살아가 해듯이 말이다.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때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일기장의 기록들을 펼쳐본다.

소현 : 초창기 나와 만났을 때 혼자 놀려고 하고 방에도 안 들어오고 말을 안듣고 했었다. 친구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며 너는 강아지 해라, 너 호랑이해라 하면서 시켰다. 친구들 역시 소현이에게 꼭 물어보고 행동했었다. 잠을 안자더라도 조용히 몸쉬기 하는편이라 남에게 피해를 안줬다. 터전에서의 모습과 달리 엄마와 있으면 어리광이 심했다. 내 눈치를 많이 봤고 7월부터는 낮잠 자기를 유독 싫어했다. 같이 놀던 지오가 먼저 낮잠을 자면 심심해서 따라 잔다. 놀다가 부딪혀 친구가 울면 사과를 안하고 도망간다. 본인이 다치면 왜 아프게 하는데 하며 혼자 사과를 받아내고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노래와 춤추기를 즐기고 또래보다 개월 수가 빨라 신체 발달도 활발하여 리더역할을 한다. 밥먹기는 잘하는데 등원시간이 매번 늦은 편이라 다른 아이들

이 늘 기다리고 물어본다. 최근에 지오와 마실을 한 경험으로 더욱 친해져서 가장 잘 지낸다. 주로 루다언니와 지호언니랑 어울린다.

지오 : 나들이길에 자꾸 뛰어다녀 넘어지니까 뛰지 말라 했더니 자기는 힘이 세서 뛰단다. 유채친구 너무 세게 안지 마세요 했더니 사랑하는 거라 한다. 먼저 상대방을 밀어서 친함을 표현하고 “빠방” 나무 자동차를 꼭 잡고 낮잠을 잔다. 일찍 자면 일찍 엄마가 온다고 하니까 “응”하며 환하게 웃는다.

지오가 친구들을 앉혀 놓고 동화책을 읽어 준다. “애들이 앉아. 편히 앉아 움직이니까 안 읽어줄 꺼야” 으아~ 으아~ 책장 넘길 때마다 계속 감탄사만 연발한다. 친구들은 재미있다고 펄떡펄떡 뛴다. 노래자랑을 하면서 한곡씩 부르는데 지오는 부끄럽다며 보지 말라고 방문밖에 나가서 로보캡폴리 노래를 크게 부른다. 카프라 막대를 한 개 더 구해 와서 마이크라고 유채에게 주면서 “뭐 부를래” 묻는다. 유채가 일주일간 병결로 응원하지 않자 서연이 옆이나 앞에만 앉아 먹겠다고 하고 음식을 떠서 준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두손을 얼굴로 가리며 부끄럽다는 표정이다. 볼록한 배가 매력적인 지오에게 배 바라 했더니 배에 힘을 쥐서 훌쩍하게 만든다. 낮잠을 안 잔날은 오후에 덜 움직인다. 내게 무섭게 한다고 얼굴을 찡그린다. 그러지 말라하면 형아들이 그랬어 형아들은 왜 해 한다. 천식으로 인해 낮잠 잘 때 갑자기 헉헉 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며 숨쉬기를 힘들어 해서 내가 많이 놀랐다. 가장 늦게 자면서도 늘 친구들 안잔다고 알려주고 혼자 노래 부르고 연극을 자주 한다. 놀다가 부딪히면 꼭 알려주고 사과를 받아내고 자기는 바로 사과를 잘 안한다. 소현이와 늘 1등, 2등 정하면서 밥 먹는데 경쟁심이 발휘된다. 오후간식 때 자주 접시를 자기 쪽으로 당긴 후 먹던가 한손으로는 접시를 잡고 먹는다. 소현이가 응원하지 않으면 “왜 안 왔는지” 물어보고 심심해 하고 영현이와 놀고 유채를 보호해주면서 지낸다. 천식증세가 있어 자주 기침을 하고 찬바람을 쐬지 않으려 마스크를 착용했고 최근에는 아토피증세와 땀띠로 피부가 거칠어진 상태다. 6세,7세 형들이 주로 이빠하고 잘 어울린다. 소현이와 서로 우리 집에 놀러와 하며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장난감 뒷정리는 안하는 편이라 영현이가 대신 정리해준다.

서연 : 3월23일경 노래 자랑하는데 로보캡폴리를 계속 불러 친구들이 귀를 막았다. 등

원하면서 아마에게 아이스크림 사 달라 울고 마트가자고 운다. 이불, 요가 없어 영현이 이불을 깔고 자면서 많이 친해졌다. 나랑 친해지면서 말이 참 많아졌다. 햇살 그랬어, 왜 그랬어 늘 질문이다. 잘 때 손가락 빨려고 손 집어넣는다. 소변 볼 때 변기에 깊숙이 앉지 않아 자주 팬티를 적신다. 밥 먹을 때 국과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안 먹는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흠뻑 젖는다. 국을 자주 쏟고 유채가 가장 늦게 먹어 남은 양을 떠먹여 줬더니 자기도 해 달라하며 입만 벌리고 숟가락을 안 잡는다. 혼자 할수 있다고 겨우 설득 후 잘 먹을 때와 안해준다고 운적도 있다. 식사는 천천히 하는 편이고 초창기보다는 먹는 속도가 빨라졌고 밥 양도 많아졌다.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았지만 다행히 소정언니 덕분에 안정을 찾아서 두루 친하게 지낸다. 안정이 된 후에는 언니를 안 찾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 밥 먹는 속도가 느리고 나물이나 고기 등 질긴 음식이 나오면 안 씹으려 한다. 그래서 자주 음식을 토해내고 잘 씹지 않고 넘긴다. 여름철에는 젖은 손수건으로 등과 겨드랑이를 자주 닦아준다.

유채 : 잘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주 뺏다. 힘들다 하면서도 긴나들이를 잘 다녀온다. 가장 빨리 낮잠을 잘 잔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붙여 놓았는데 없어졌다고 울었다. 소현이와 친하면서 모든 행동과 말을 따라한다. 지오가 안에서 방문을 잠궈 잠시 동안 무서워서 크게 울었다. 오빠들이 방문 앞에서 놀고 있으면 휴지 버리러 그 옆을 못 지나가고 울고 무서워하면서 내 손을 꼭 잡는다. 6월14일경부터 친구들이 조금만 놀려도 울기부터 했던 시간이 짧아지고 자기도 밀치면서 맞대응한다. 큰소리로 “하지 말라 했잖아” 한다. 옷을 벗고 양말은 장난감통에 놔둬서 오후에 내가 찾게 만든다. 오빠들이 유채 예쁘다고 얼굴 만질려고 하면 여전히

운다. 더운 날씨가 되면서 밥을 잘 안먹으려고 하고 천천히 먹는다. 7월10일경 바지에 응가를 한 후 응가했다고 얘기한다. 여름방학과 겹치고 장기간 결석후 등원한 후 재적응상태로 돌아와서 엄마랑 할머니랑 안 떨어질려고 운다. 그러나 우는 시간이 아주 짧아졌다. 소현이와 무려 10개월 차이가 나서 나들이 길에서 늘 3세라고 오해를 받는다. 그렇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다부지게 걷고 뛰고 한다. 밥먹을 때 천천히 먹는 편이지만 끝까지 잘 먹는다.

영현 : 초창기 언니랑 손잡고 도담방에서 잤다. 언니 없으면 불안해하고 운다. 베개가 높아 불편해 한다. 나들이길에 보폭이 짧고 적극적으로 잘 안 걷는다. 걸을 때마다 돌과 나뭇가지를 다 쭈고 살핀다고 속도가 가장 늦다. 신발이 무거운지 끌면서 걷는다. 놀다가 친구를 찬후 바로 사과한다. 다리힘이 좋고 친구들에게 늘 잔소리를 한다. 6월 20일경 꿈을 꿨는지 자다가 놀란 얼굴을 한 후 벌떡 일어난 후 토닥해주니 바로 잔다. 친구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꼭 교사에게 알려준다. 자기 하자는 대로 안해주면 화내고 화장실 번기에 소변이 남아 있으면 물 내리고 사용하고 자기가 사용 후에도 꼭 물을 내린다. 병원놀이 하는걸 즐기고 요리해서 먹어보라고 늘 갖다준다. 잘 씹지 않고 넘기고 국을 자주 쏟는다. 7월10일경 많이 먹었는데 소변과 응가를 실수로 바지에 한 후 울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왔어”한다. 먼산을 보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질 뻔 했고 앞을 잘 안보고 다니다가 나무에 부딪힌다. 8월5일경 말끝마다 “시”하며 욕설을 하는듯 했다. 두루 친하고 소현이가 리더역할 하면서 어떤 놀이를 하자고 하면 자주 “싫다”고 표현을 한다. 자기 표현이 뚜렷하다. 혼자 놀기를 즐기고 유채보다 4일이나 늦게 태어났지만 언니처럼 행동한다. 최근에는 민소연니 흉내를 자주 낸다. “안녕하세요. 4살 김영현입니다.” 인사하고는 노래 부르고 춤춘다.

※ 가람방 평가

상반기 가람방 아이들은 대체로 무난했다. 초기엔 주하와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 주하는 지금 ^^보기만 해도 뿌듯한 형님이 되었다.(사심은 없다)월요일 차 모듬을 하기 전에 말하지 않아도 미리 상을 준비하고 놀이감 정리 시간에도 머뭇거림 없이 잘 도와준다. 또한 나들이 길에 항상 동생들을 잘 챙기며 스스로도 잘 놀고, 원래 잠이 없는 아이지만 몸쉬기 시간에도 조용히 몸쉬기 잘 하는 의젓한 형님이 되었다.

7세가 나서서 하니 자연스럽게 또래들과 동생들도 따라한다. 작년에 힘들어 하던 도연이도 이젠 등원 길에 한 손엔 간식을 들고 씩씩하게 혼자 걸어 들어오며 아빠와 인사도 잘 한다. 6세 또래들과 상호 작용이 많으며 요즘은 윤아와 붙어 다닌다. 윤아와는 친하게 지내다 따로 놀다를 반복하지만 지금은 단짝이다. 도연이 얼굴에서도 편안함과 즐거움이 묻어나 뿌듯하다. 신입인 루다는 터전 생활이 몇 년 차 된거 마냥 자연스럽다. 가끔은 엄마아빠와 헤어짐을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루다는 의사 표현도 잘하고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으며 또래 속에서는 리더하고자 하는 밝은 아이이다. 준서는 처음엔 터전 아이들 무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터전 생활을 재미없어 하고 엄마와 헤어지는 걸 무척 힘들어했다.

지금은 마실과 또래 모임으로 터전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월드 메르디앙 어린이집 가고 싶어, 거기엔 내 친구가 더 많아”라는 이야기를 했다. 준서에게 터전 생활에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어야겠다. (이름이 나열되지 않은 아이들은 초기와 마찬가지로 잘 지내고 놀고 있으며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 선화/씩씩한 통합이야기 평가

씩씩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장애유아통합교육을 올해 담당하고 상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도 기질이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선화의 친구들도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음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도 차이가 있어보였기에 아이들 못지않게 나또한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지금하고 있는 행동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의사소통 대신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이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점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까?’ 등의 문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기에 한 달에 두 번 한 시간 정도 밖에 안되는 시간들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지기 쉬웠고, 궁금함에 대한 공부나 어떤 해소 없이 그렇게 또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놀고 있었다. 다른 것보다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했던 초반의 의도는 지금 씩씩한과 선화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유아기의 놀이는 아동의 인지, 사회성, 언어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놀이를 통해 아동은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기의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아동은 마찬가지로 또래 아동과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발달을 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유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자발적으로 하려는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러한 발달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긍정적인 바람으로 남은 하반기를 더욱 고민하며 보낼 것 같다.

※ 요리활동 평가

1월

▶ 현미 가래떡 썰기

- 빵을 자르는 플라스틱 칼로 떡국 떡을 썰었다. 칼이 잘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예쁜 모양의 떡국 떡을 썰었다. 후반기 7세는 진짜 칼로 떡국 썰기를 할 수 있겠지요. 대나무꼬치에 떡국 떡을 끼워 살짝 구워 먹었더니 그것 또한 멋진 간식이 되었다.

▶ 만두 만들기

- 아이들의 작은 손에는 만두피가 너무 크다. 하지만 만두소를 소량씩 넣어 손으로 꼭꼭 빚어 모양을 만들었다. 7세는 매년 한 활동이라 자유롭게 모양을 빚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다. 만든 만두를 찌서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2월

▶ 강정 만들기

- 엿물에 버무린 쌀 튀밥을 방별로 나누어주고 손으로 꼭꼭 주무르면서 동그랗게 만들었다. 달콤하고 바삭한 과자를 어찌 먹지 않고 그냥 지날 수 있을까? 채 완성하기도 전에 조금씩 집어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웠다.

▶ 떡꼬치

-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가늘게 뽑아온 가래떡을 빵칼을 사용해서 원하는 길이로 잘라 꼬치에 떡, 은행, 떡 순서로 꽂도록 했다. 평소 고추장 들어간 음식은 맵다고 물부터 찾는데 맵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자리 이동 없이 너무 잘 먹었다.

▶ 고구마 김치 고로케

- 찢은 고구마를 잘라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양파 썰고, 햄을 썰었다.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고 버무려 동글동글 빚어냈다. 야채 싫다고 투정부리는 아이 없이 부드럽

고 달콤한 고구마, 아삭한 김치맛, 고소한 치즈 맛을 너무나 좋아했다.

3월

▶ 장 담그기

- 아이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60일 후에 장 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씨 탓인지 간장을 처음부터 끓여서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꽃가지(곰팡이)가 생겼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끓여서 병에 넣어 보관중이다.

▶ 마전

- 마를 강판에 갈아 전을 부치기로 했다. 강판의 개수가 적었지만 차례를 기다리면서 순서가 되면 야무지게 잡고 갈았다. 너무 달지 않게 꿀도 약간 사용해서 준비를 했지만 밀가루를 넣어서인지 마전이 약간 단단하여 생각보다는 맛이 있지 않았다. 다음번엔 순수 마만 사용하고 꿀을 조금 더 묻혀 꿀 마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4월

▶ 썩인절미

- 썩인절미 덩어리를 직접 빵 칼로 자르고, 자르는 것이 힘들면 손으로 그냥 뜯어서 고물을 묻히고 떡을 완성했다. 콩고물도 묻히고 먹어도, 그냥 먹어도 참 맛있어 했다. 직접 간식 거리를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어 좋았다

▶ 썩화전

- 진달래화전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꽃이 피는 시기를 놓쳐서 썩화전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개화시기를 잘 알아보고 적당히 활동순서를 바꾸어가며 요리해야겠다.) 새알을 조물락 조물락 경단 보다 약간 크게 빚어서 준비한 썩 잎으로 장식했다. 굵은 과정은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낮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시럽을 얹은 화전을 맛나게 먹었다

5월

▶ 썩깨떡

- 뜨거운 물을 부은 쌀가루를 천천히 돌려가며 만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반죽을 시작했다. 떡이 쫄쫄하고 부드러워 질 때까지 오랫동안 조물조물 해 주었다. 몇 년 전에 형들이 만들어둔 떡살을 이용해 전통 떡을 만들었다. 옛것인 떡살을 짚어 모양을 내니 너무 멋있었다. 정말 반죽을 잘해서 쫄쫄찰진 것이 맞나하면 정신없이 먹었다.

▶ 아카시꽃튀김, 썩튀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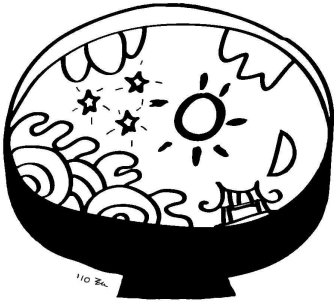
-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물기를 탈탈 흔들어 털고 한 송이씩 가지고 아이들 손을 같이 잡고 튀김옷을 살짝 묻혀 조심스럽게 기름에 넣었다. 넣는 순간 꽃이 사르르 활짝 피는 것을 보고 좋아했다. 참 예뻐다. 썩튀김의 맛도 보여 주고 싶어 아카시꽃 튀김을 먹는 동안 썩튀김도 완성했다. 완성된 튀김을 아이들에게 내 주었더니 아카시향기도 난다며 좋아했다. 쓰다고 생각했던 썩튀김도 잘 먹었다. 일 년 중 이맘때에만 먹을 수 있는 아카시꽃튀김과 썩튀김을 굉장히 좋아했다.

6월

▶ 매실효소

- 이번 활동은 매실이 수확에 따라 요리 활동 일정도 변경되고 아이들 일정과도 맞추려다 보니 모든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내년에는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매실의 효능과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요리활동을 하고 싶다.





씩씩한 맛있는 9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오전간식	누룽지탕	빵·우유	계란야채말이	단호박스프	만두국
점심	호박잎된장찌개 돈오징어불고기 부추겉절이	닭고기국 더덕구이 고구마줄기볶음	김치볶음밥 오이냉국	배추된장국 우엉조림 멸치볶음	쇠고기국 도라지무침 김구이
오후간식	잔치국수	간장떡볶이	감자전	도토리묵채국	포도
	10	11	12	13	14
오전간식	새우죽	유부참치주먹밥	우유, 씨리얼	옥수수스프	블루베리요구르트
점심	채첩국 소불고기 양배추쌈	새우큰대국 고등어김치조림 숙주나물	카레라이스 맑은 된장국	참치김치찌개 도토리묵무침 콩자반	토란된장국 메추리알장조림 진미간장볶음
오후간식	김치비빔국수	통감자구이	두부김치전	견과류백설기	단호박빵·두유
	17	18	19	20	21
오전간식	자죽	유과·과일	멸치주먹밥	계란토스트	미숫가루·과일
점심	어묵두부국 오징어, 브로콜리 연근조림	아욱된장국 양송이버섯구이 미역줄기볶음	자장밥 계란국	팽이버섯된장국 삼치간장조림 콩나물무침	쇠고기미역국 닭강정 오이피클
오후간식	누룽지튀김	옥수수수술빵	찐고구마	김치전	박주하생일(23)
	24	25	26	27	28
오전간식	들깨죽	새알미역국	김밥	삶은계란·매실	찜빵
점심	쇠고기맑은국 멸치조림 오이볶음	청국장 찌개 양배추·다시마쌈 돼지불고기	콩나물밥 맑은두부된장국	닭고기국 고사리나물 두부전	우렁이된장국 어묵야채볶음 시금치나물
오후간식	떡만두국	과일요구르트	부추오징어전	청포묵채국	인절미

* 식품원산지 - 쌀·잡곡류·쇠고기(한우)·돼지고기=국산 김치(직접담금)-배추·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방과후 8월 교육평가 · 9월 교육계획

김병현, 류선희(해바라기 토토로, 포도)

8월 한 달 동안 방학과 개학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방과 후에서 놀 거리를 찾았다. 12시까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등원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20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등원했다. 터전에서 점심을 제대로 챙겨먹어서 인지 느낌상 다들 살들이 붙은 느낌이다. 방학동안 비가 수시로 와서 천을산을 생각보단 못 갔다. 9월이 되면 높은 가을하늘을 천을산에서 바라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일상에서는 별다른 특이한 점 보다는 익숙해진 서로의 관계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문영이와 기연이 사이에 다안이가 가세하면서 놀이의 무리들이 커졌다. 특히 기연이와 다안이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다안이가 좀 더 적극적이다. 문영이도 다안이를 잘 받아들이며 셋이서 많이 친해졌다.

여름 들살이

8월에는 여름들살이가 있다. 준비하고 모이고 찾아보고 하는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번 여름들살이에서는 아이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3일정도 있었다. 전체 공지를 하는 날, 조별 발표와 모이는 날 그리고 조별로 의논을 통해 준비하는 날이었다.

특별히 아이들이 들고 가거나 연습해가는 부분을 없애고 아이들끼리 이동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아이들끼리 이동에 염려가 있었고 아이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두 조를 묶어서 교사 한명이 뒤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정했다. 다행히 달사탕께서 함께 가주셔서 총 3팀으로 나누어 갈 수 있었다.

이동상에서 지하철 이용 팀과 버스로 끝까지 가는 팀이 있었는데, 지하철 팀이 좀 더 난코스였지만 토토로가 따라간다는 생각에 바로 두 팀이 지원했다. 지하철을 타고 두류역에 내려서 버스정류장을 찾아서 356번 버스를 타고 북부정류장까지 가는 여정인데 가면서 길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주위 어른들에게 물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훌쩍 커 보이기도 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훨씬 자신들의 몫을 잘해냈다.

아이들과의 평가에서 조별로 아이들끼리 이동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긴장감이 있어 좋았다는 아이들도 나왔다. 다음에는 아예 선생님들 없이 우리끼리 가보자는 제안을 한 아이도 있었다. 이동하면서 각종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길을 가는 두려움에 미션을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겹치자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

들의 반응도 나왔다.

대체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4~5명 정도의 아이들은 1박2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집 떠나고 엄마와 떨어져 자는 것이 몹시 부담이 되는 아이들이어서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래도 무난히 2박3일의 일정을 잘 소화했다.

우방 이월드

이번 들살이에서 받았던 회비에서 교사들의 노력으로 돈이 좀 남았다. 그래서 8월 29일에 우방 이월드에 갔다. 단체 할인을 통해 자유이용권을 13,000원으로 하고 인솔교사는 3명 전부 무료로 입장했다. 20명 이상 단체에 인솔교사 1인만 무료입장이지만 다행히 복잡한 날이 아니라 3명 모두 무료 자유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동행아마로 찬우모께서 같이 가주셔서 토토로, 포도, 찬우모 이렇게 세명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다녔다. 아이들이 1학기보다 훌쩍 커서 대부분 120센티미터를 넘겨 원하는 기구를 마음껏 탈수 있었다. 횃수의 제한 없이 같은 기구를 반복해서 탈기도 했다. 특히 후름 라이드가 인기가 있었고 바이킹도 일부 1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타기도 했다. 오히려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용감하게 타고 기구를 즐기기도 했다.

그 다음 인기가 있는 것이 범퍼카 이것도 예전엔 몇몇 아이들만이 탈 수 있는 기구였지만 키 제한을 넘긴 아이들 대부분이 두세 번씩 타는 인기 많은 코스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은 신나는 표정이 역력했고 더운

날씨에도 지치는 표정 하나 없이 이리저리 무엇을 탈까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간식으로는 두 명이서 한 개씩 먹을 수 있도록 돈까스 세트를 시켰다. 아이들은 간식 앞에 환호 했고 열심히 밥처럼 깨끗이 먹어치웠다. 후다닥 먹고는 또 나가서 놀았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것저것 타고 싶은 것을 골라가며 반복해서 즐겼다.

돌아올 때는 만족한 기분에 단체 사진도 기분 좋게 찍고 지하철을 타고 터전으로 돌아왔다. 근래 놀이공원을 가 본적이 없어 아이들이 더욱 좋아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날씨 좋을 때 가보니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보이기도 했고 더욱 용감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풍물연습

풍물은 한 달에 두 번씩 연습을 한다. 아직 자진모리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곧 잘 해내고 응용 가락도 금방 따라왔다. 남은 기간 계속 연습해서 아이들이 풍물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생각이다. 1학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2학년들은 들어 본 익숙한 가락을 치는 느낌은 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흥내를 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갈 것이다. **레!**

♥ 해바라기 방과후 9월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3 연극 놀이	4 천을산	5 긴나들이 (대구과학원)	6 개인 활동	7 등근모듬
10 씨름에 모든 것	11 천을산	12 긴나들이 (고사초 개교기념일)	13 개인 활동	14 씨름에 모든 것
17 풍물연습	18 남 녀 활동	19 긴나들이 (안심도서관 자전거 타기)	20 개인 활동	21 씨름에 모든 것
24 해바라기 대회 (씨름)	25 천을산	26 송편 만들기	27 개인 활동	28 풍물연습

씩씩한 터전 소식

황성원(씩씩한 이루다엄마)

찌는 듯, 볶는 듯 뜨겁디 뜨거운 8월이었지요?

터전 방학 후 더 새까맣게 그을린 모든(휴가 못한 몇몇 빼고!) 씩씩한, 해바라기 식구들 어찌들 지내셨나요?ㅎㅎ

1. 엄마모임

방학 막바지였던 지난 5일, 대청소후 엄마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 바자회 이후 오랜만이었지요?

더위 속에서 아이들과 처절하게 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엄마모임에선

재미난 이야기와 수다들로 엄청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9월 들살이에서 선보일 엄마들의 장기자랑 얘기도 빠질 수 없었다는데 모두들 기대해 봅시다!

2. 잠자리 기절시키기

뜨근뜨근한 지열과 따끔따끔한 떡약벌아래 우리 씩씩이들과 선생님들의 나들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지만! 그 속에서도 한 장면, 한 장면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훈;

체리; (한참을).....

체리; 시훈아, 뭐해?

시훈; 응, 잠자리 잡으려고... 잠자리 기절시키는 중이야.

체리; 응?? 그러면 잠자리가 기절해?

그렇게 하면 잠자리가 기절한다고 누



가 갈채줬어?

시훈; 아니, 그냥 이려고 있으면 잠자리가 기절할 것 같아서...

체리; (까르르르~)

시훈이는 지금 땀방울 송골송골, 잠자리 앞에서 손가락 뱅글뱅글 돌리며 잠자리가 기절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ㅋㅋ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어린 우리들이 시훈이처럼 잠자리 잡으려고 한번쯤 시도해 봤던 그 뱅글뱅글 돌리기!ㅎㅎ

씩씩이들의 놀이는 이렇게 우리들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어떤 것을 끄집어 내어주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린 다른 부모들에 비해 좀 더 일찍부터 아이들의 마음과 닿는 어떤 지점을 늘 경험하고 또 자연스레 배우게 되는 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말이지요...

야! 그 뜨거웠던 한여름 낮시간에도 무사히, 안전하게 나들이를 몸으로 보여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꾸~뻑!

3. 제철 과일 풍성했던 터전

지난 7월 햇살의 피자두의 인기에 이어 8월엔 하람이네 팔공산 꿀복숭아(정확히는 할아버지떡!)가 터전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였지요!

햇살은 무려 10박스를 주문하셨다는데... ㅎㅎ

일반 마트의 가격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고 맛도 완전 짱이어서 찌는 더위였지만 덕분에 달달한 8월을 보냈습니다.

4. 들살이의 꽃 아마공연 준비


곧 다가올 들살이에서 신규조합원들의 몸짓공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쩌나... 손, 발, 마음이 엇박자인 고령의 신규조합원들이 엄청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00엄마는 연습하다 1년치 웃음을 다 웃어버렸다는데... 참 걱정됩니다.ㅠㅠ

처음 시작할 땐 갈 길이 멀게 느껴지고, 피곤, 서먹, 부끄... 했었는데 서로서로 응원하고, 마음모아, 몸모아 애쓰는 과정에서 신규조합원들끼리는 뭔가 끈끈한 스파~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데요, 기대해 봅시다!

이 외에도 터전에서는 이집, 저집 마실이 계속 이어지고, 한땀 한땀 바느질모임이 있었고, 9월 들살이 준비로 여러 차례 답사에서부터 황토티셔츠 제작에 애쓰신 아마들, 또 아빠들의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아빠모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곳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모두 모두 복 받으세요 ^^ 

해바라기 터전 소식

이미지(해바라기 정강민엄마)

1. 방학 첫날, 봉산문화회관 나들이

방학 첫날 이른 아침에 나들이를 간 곳은 봉산문화회관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곳에서 <청소년 예술 공작소 프로젝트>라는 것에 참여하고 있던 터라,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다른 학교 아이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광석이라는 영상작가의 설치작품을 감상하고, 왜곡된 영상 속 그림자의 진짜 모습을 각자 추측하여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자의 진짜 모습은 뭘까? 괴물, 축구공, 토끼, 수박, 화병, 나비 등 너무나 다양하게 쏟아내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그룹의 아이들보다 다양하게 제각각 생각들을 표현하더군요. 보통,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류작들도 쏟아지기 마련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현상이 없이 각기 제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만들다 보니, 새로운 생각들도 보태져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자연과 친한 우리아이들이 문화예술과 만나는 시간도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강의실이 떠나갈듯 소란스럽고 자유스러웠습니다.

새삼, 우리 아이들을 항상 인솔하시는 선생님들께 무한 감사를 느끼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 아파트 분수대는 우리 꺼!

동네 아이프라임 아파트로 물놀이를 간 날. 내리 쬐는 띄약별에 좋은 피서지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쾌적한 주위환경과 잘 만들어진 분수대는 우리 아이들의 피서지로 충분했습니다. 시시때때 리듬을 타며 뿔어대는 물줄기는 아이들의 더위와 갈증을 한방에 날려주었고, 보는 이들도 시원하게 만들어준 오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노는 소리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들며 아파트 분수대는 작은 워터파크가 되었습니다. 한 여름 아이들과 시름하는 선생님들께도 잠시나마 한더위를 식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 해바라기 올림픽 외 새로운 놀이

런던 올림픽 기간 중 해바라기에서도 배드민턴, 핸드볼, 야구, 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금메달이 쏟아지고, 중계가 되는 뜨거운 밤이 계속 될수록 아이들도 새로운 종목들을 시도하면서 작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금메달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또한 올림픽 이후, 아이들은 바둑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안방에서는 학교와 시장놀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역할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긴장되는 상주들살이 미션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상주 들살이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 팀이

만들어졌고, 3-4명의 팀은 제각각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북부정류장까지 도착하여 다 같이 상주행 버스를 타고, 상주터미널에서도 각자 버스를 타고 가는 팀별 미션이었습니다. 조별로 지급되는 봉투에는 교통비와 간식비가 책정되어 팀장에게 전달되었고, 팀원 각자 미션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 아이들 모습은 마치 이라크 참전 용사라도 된 양 잔뜩 긴장되고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주에서는 물놀이, 옥수수 따먹기, 유연성 게임 등을 했는데, 아이들 모두 물놀이와 미션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강민이는 생 옥수수 먹기가 가장 곤혹스러웠다고 하네요. 유난히 잠자리를 가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강민이는 동생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연이를 울면서 잠자리에 드는 힘든 들살이를 보내고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강민이 덕분에 울려고 대기하고 있던 몇몇 아이들이 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팀웍과 리더쉽, 모험심을 함께 도모했던 이번 들살이가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아이를 지켜보고, 격려해주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통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박정애(씩씩한 햇살)

8월18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비수도권 열린 강좌가 터전에서 있었다. 강사로 오신 달팽이는 현재 사무국에 계시며 과거 조합원출신 교사로 11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셨고 장애아동에 대해 공부했던 계기는 본인이 교사로 근무할 당시 장애아동이 있었는데 부모입장에서는 담임교사가 잘 돌보지 못해 적응을 못한다고 판단하고 중간에 탈퇴했었던 일들로 인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나 역시 친구의 둘째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고 서울에서 고비용의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 지리산으로 귀농 후 온가족이 집을 짓고 농사를 함께하면서 앞으로 혼자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있다. 몇달 전 만났을 때도 그 아이는 여전히 처음 들었던 피아노 연주를 바로 즉석에서 눈감고 연주하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놀라웠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어려웠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터전에 나오신 이사장님이 컴퓨터와 스크린 장비를 설치해 주신다고 분주했고 오후에 즐지 말고 열심히 교육 받으라고 시원한 팔빙수까지 보내주셔서 또 한번 우리 터전이 손님들에게 멋진 곳임을 자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날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은 대전과 강릉에서 오신 교사 2명과 대구지역 딱지와구슬에서 오신 교사 2명, 그리고 우리 터전교사 5명을 포함해 총10명이 무더위를 잊으며 공부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흔히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아동만을 위한 교육, 시설 문턱이라도

고쳐서 잘 준비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할거면 기존 교육들과 통합교육을 함께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아마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아동 문외가 들어오면 받아들이려는 긍정적인 문화와 교사의 입장과 조금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아이를 돌볼 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 아이한테 그것이 왜 필요한지 등을 꾸준히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 답을 얻어야지 안그러면 계속 혼란스럽기만 해서 터전생활에 만족감을 못 느끼고 아이를 돌보는 직업 자체까지 힘들어진다고 한다.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우선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호도 조사, 같은 나이포레와 비교했을 때 사회성, 대소근육 운동성,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신변처리(식사/옷입고 벗기/화장실사용), 인지능력, 의사소통, 정서 및 행동, 여러 활동참여도 등을 관찰한 후 오랜시간 보내는 터전생활과 집에서의 활동등을 종합하여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중재하는 방법,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라는 밀드레드 알드리치의 말을 인용해서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은 사물을 같은 지점에서 볼수 없으며, 보는 각도가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했단다. 감정언어는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인식하

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감정의 기초가 견고한 아이들은 사회성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낸다. 실패를 더 잘 견디고 잘 싸우지 않고 파괴적인 행동을 덜 하고 더 건강한 모습들이다. 터전이 아무리 편안한 곳이라도 집처럼 편안하지는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연령과 기질에 따라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어 견딜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며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갖자. 교사들의 사례발표 시간을 갖으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라고 하셨다. 간혹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조일기 쓰기, 명상하기, 종교 갖기 등이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란다. 자신의 감정읽기 연습으로 나비효과를 실습 해봤다. 나비의 날개 짓 한번으로 주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었다. 둥근모양의 종이를 오려 동그라미를 크게 두 개 그린 후 중앙에 최근에 속상했던 일 1개를 기록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 일로 인해 벌어진 일을 적고 마지막 동그라미에는 그 일로 인해 주변 전체에 영향을 줬던 일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여려분이 어머니에게 화내고 소리지른다(중앙 동그라미),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두번째 동그라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록한다(마지막 가장 큰 테두리 동그라미)

중심적인 문제를 바꿔야 전체가 점점 커지면서 변화가 옴을 알 수 있다.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 검토하기에는 화나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런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로 인해 유아 및 가족들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분노 조절하기 방법에는 마음의 촛불 끄기(상상속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큰 원 호흡으로 끄기), 거북이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첫째 그 행동을 멈춰, 둘째 거


북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칭찬해주기 등이 있었다.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이가 어른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교사에게 도움 구하기, 친절하게 요청하기, 무시하기, 놀이하기, 이제 그만해줄래 라고 말하기, ○○좀 해줄래 라고 말하기, 나누어 쓰고 공유하기, 놀잇감과 물건을 바꾸어 쓰기, 기다리고 차례가 되면 하기가 있다.

문제발생 순간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필히 지켜서 지원하기에는 문제를 예측하기, 가까이서 문제를 조사하기, 지원하기, 격려하고, 촉진하기 등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통합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도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이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여 방법을 계획, 실행, 아동을 “고쳐”“보고자 한다.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위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 관계와 참여의 발달이라는 1차 목적을 두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어른, 아이의 관계 서로 존중의 분위기에서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체제개선까지 그 목적과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평소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모는 휴일에 아이와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확보가 필요하다.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6세 이상 되는 아이가 그런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해줄 것인가? 그런 행동들이 고착화될 수 있기에 염려되고 교사라면 그 문제해결을 위해 알려고 하고 그런 객관적 기록들을 남겨서 부모와 의논해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공동육아라서 훨씬 가능할 것 같은 희망 이 보인다. 

‘당신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김영수(씩씩한 김민소, 김영현 아빠)

조합원 교육으로 영화를 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두 개의 문’은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영화이었기에 조합원 교육 공지를 보고 한껏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도 가물거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부의 데이트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사회회 세심한 배려(?)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 조합원교육으로 ‘두 개의 문’을 단체 관람했다는 사실과 작가와의 대화를 추진했다는 것에 적잖이 놀라워하고 응원을 보내 주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공동육아가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를 향한 좀 더 적극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으로서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겨났다.

2009년 1월 19일,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군의 사람들이 용산4구역 남일당 옥상 망루에 올랐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이들 중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 한 명이 주검으로 내려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인의 낙인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참사가 발생하였다. ‘두 개의 문’은 그 하루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

망루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자본에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으며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망루까지 가는 길도 모르는 채 명령에 따라 지옥의 계단을 오른 경찰특공대원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둘은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으며 강요된 상황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었다.

그래서 영화는 경찰특공대와 철거민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이 사건의 책임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접근하고자 한다.

이 비극적 참사는 MB정권이 정권초기부터 누차 밝힌 불관용 원칙과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에 눈이 먼 자본의 탐욕 그리고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수뇌부의 공명심이 어우러져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배제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도 허락하지 않는 야만의 사회가 있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국민이 왜 망루에 올라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들으려하지도 않았다. 이 야만적인 사회의 인

내심은 고작 25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참혹한 결과로 끝을 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언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은폐, 통제되어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버렸다.

치밀하게 조정된 결과와 외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였고 그 무기력함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용산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영화 '두 개의 문'은 다시 기억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다.

영화제목 '두 개의 문'은 진압과정에서 경찰특공대 앞에 놓인 두 개의 문 중 어느 쪽이 망루로 연결되는지도 모른 채 무모하게 작전을 감행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에서 김일란 감독은 '우리 모두가 불편한 진실의 목격자이다. 두 개의 문은 외면할 것인가, 개입할 것인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두 개의 문은 영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3년 전의 사건을 기록한 '두 개의 문'은 과거의 문이 아니라 현재의 문이다.

뉴스를 통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어느 타인들의 문이 아니라 누구나의 발 앞에 놓일 수 있는 바로 자신의 문이다.

그리고 용산 남일당에만 존재하는 문이 아니라 제주의 강정에서부터 밀양, 쌍용까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이다.

두 개의 문은 그렇게 한국사회의 야만적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거나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의 문!

그런데 이렇게 야만의 사회를 그냥 두고 나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과연 나와 우리 아이들은 무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와 우리의 아이들만 용케 무관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용산을 생활터전으로 30년 넘게 살아오며 호프집을 운영하던 평범한 이웃 70살 노인이나 여덟살 딸아이의 아버지이며 상황에 대한 판단도 허락되지 않은 32살 경찰특공대나 그렇게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화염과 함께 생을 마감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을까?

국가와 자본의 초법적 폭력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분노로 불편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 하였다. 감독의 대화까지 마치고 나오는 영화관 복도에서 마주한 영화 포스터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당신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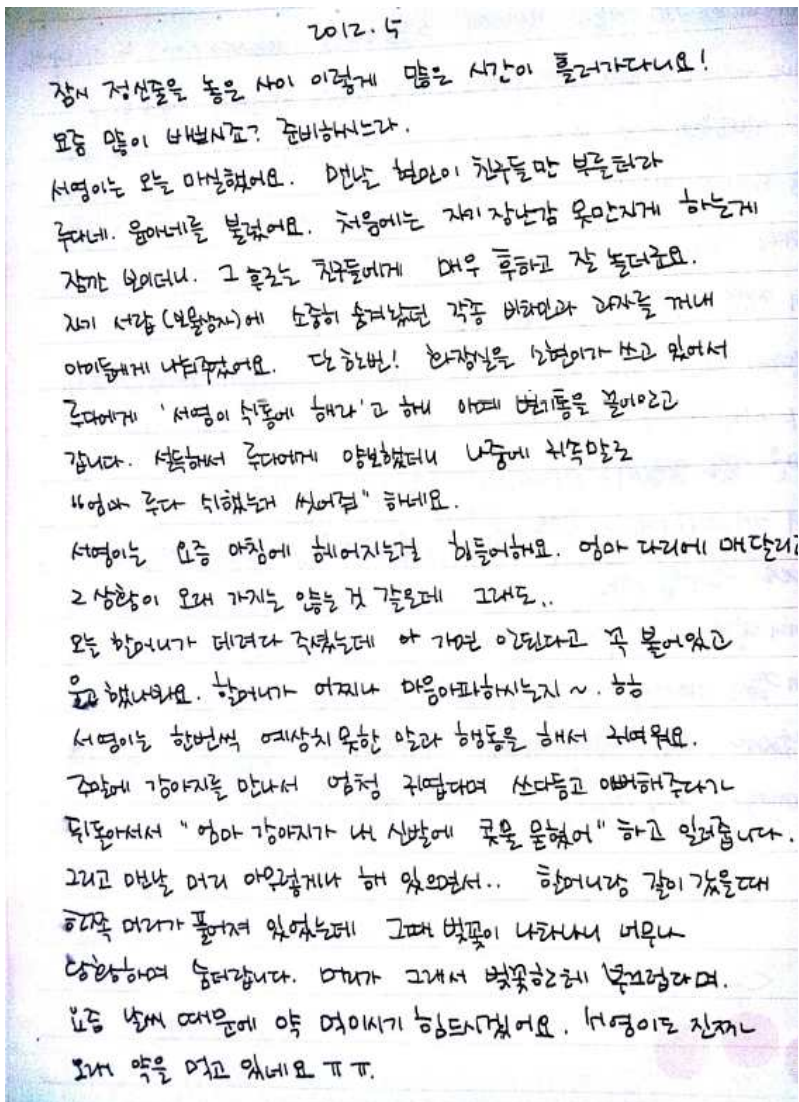
가끔은 엉뚱하지만 인심은 후~한 서영이의 하루~~

최세정(씩씩한 이현민, 이서영 엄마), 황태순(벚꽃)

※ 7월호부터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아바들의 날적이 중 매달 한편씩 실을 예정이며, 터전 선생님의 추천 또는 본인
인이 실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내용 이나 형식은 자유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5. 18.

어려 더 할 것도 많고 밤은 더 그날 따라 부끄러워(??) 하리라구
 어제는 어머니 덕분에 특별세비스. - 다음 유서원. 어린이랑 치구들나도
 따로 설명들이 - 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요즘 타지에 탕탕분이 두개있는데 시영이는 왜냐가 글을 쓰지도
 작지만 반고 시영이한테는 지쳐 기라가 가서 양호의
 양이 잔뜩 올라 속상하게합니다.
 오랫동안 내은 습가 나들이 갔다가 금을 들 수있을 버렸고 잊지
 않아 다시 갔으며 올라가는데 뒤에서 시영이가 달려오며
 "내가 갖고 있었어. 타지하면 습구 끝내고 주머니에 넣었어."
 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습구 끝내고 얘기한 후, 습을 함께 잡고
 타지로 돌아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후한대는 재는 후한것 같아요.
 가래 끝은 기침을 자면서 견디고 하네요.
 먼 날씨엔 양호의 변의시켜줘야 아플리구들이 양호의 눈에 띄네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시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편집후기

이옥희 [김지호엄마]

들살이 준비로 바쁜 가운데 방모임이 한 주 미뤄지니 제 마음도 살~짝 가벼워져서 소식지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너그러운 맘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곧 있을 전체 들살이 무탈하게 재미나게 치뤄지길 바래 봅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김덕춘[최재홍재욱엄마]

높고 파란 하늘, 선선해진 공기, 모든 게 저절로 용서될 것 같은 축복과도 같은 가을입니다. 모두 넉넉한 9월 되시길 기원합니다... ^^

신미정 [김동현엄마]

여는 글 코너에 실린 남편 글을 보니 제 글을 보는 듯 부끄러운 한편 자랑스런 마음도 생기네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면으론 지혜로워지는 거지만, 축 쳐지고 게을러지는 육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란 생각도 자주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미지 [전강민엄마]

가을이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밤공기가 시원해지네요. 여름에 흘린 땀 만큼이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가을이기를 기대합니다. 고생하시는 편집장님 핫팅! **씩해**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92호

- 발행일 2012년 9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이옥희, 김덕춘, 신미정, 황성원
장순향, 김미재, 이미지, 박지영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